

# 국내 학술지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 A Study on Korean Journal Evaluation

배순자, 남영준, 조현양<sup>0</sup>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연구개발정보센터 문헌정보 사업실

Bae Soon-ja, Nam Young-Joon, Cho Hyun-yang<sup>0</sup>

Korea R & D Information Center

JeonJu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학술지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이용빈도와 인용빈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나 시간과 비용, 인력 문제에 따라 그 효용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학술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학술지가 갖고 있는 외형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또한, 인용분석도 병행하여 외형적 평가기준과의 연관성도 조사하였다. 새로운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학문 전반적인 연구에 앞서 일문학분야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실험도 수행되었다.

### 서 론

현재 국내 대학교들은 교수업적 평가의 일환으로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인정하는 학술지와 인정하지 않는 학술지의 구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속 교수들의 연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수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만을 인정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따라서 학술지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화는 전공의 특수성과 다양성 때문에 단순한 외형적 정보나 직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자신의 연구가 객관화되지 않은 기준에 의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전문인들의 주관으로 학술지의 중요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해당 전문인들의 동의를 없지 못하는 무의미한 기준설정이 될 수 있다.

한편, 도서관들은 예산과 인원, 공간의 제약

때문에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모든 학술지를 모두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장서구성을 위해 이용빈도와 같은 계수화가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관에 필요한 장서만을 구입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 소속원들의 연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학술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도서관에서 장서구성을 위해 학술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은 평가목적에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결과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통성에 기인하여 학술지의 활용성 순위를 측정하기 위해 학술지의 외형적인 정보와 인용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선행 연구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 장서구성을 위해 활용했던 방법은 크게 이용빈도와 인용빈도를 이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용빈도를 활용

한 것으로는 버어턴과 케블러가 제시한 '문헌의 수명감소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새로운 문헌이 생산되면 기존의 문헌이용율은 지수적으로 떨어진다는 전제에 근거한 연구이다. 즉, 이용빈도에 따라 보관할 자료(주요 자료)와 폐기할 자료(폐기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출판년도와 이용빈도이다. 인용빈도를 이용한 것으로는 브래드포드가 제시한 '과학기술문헌의 서술법칙과 그래프 법칙'이 있다. 이는 특정주제분야 학술지집단은 반드시 주요학술지(core journal)가 있으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법칙이 부록스에 의해 정리되어 주요 학술지와 우수 학술지(leading journal), 주변 학술지(peripheral journal)로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다. 로즈카는 학술논문의 생산성에 대해 주요 저자가 결정되면 n편의 논문을 기고한 저자의 수는 한편의 논문만을 기고한 저자의  $1/n^2$ 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요 저자가 기고한 학술지를 우수학술지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즉, 학술지의 중요도는 해당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들이 다른 논문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연구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고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내 연구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특정 주제분야를 선정하여 주요 학술지를 조사하거나 주요저자를 결정하는 형태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용형태와 이용빈도를

기준으로 논문 질을 판단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박홍석은 국내학술지를 평가하는데 외형적 정보도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박홍석)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인용분석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시간과 비용적 측면 때문에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와 미의 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개발한 외형적 평가기준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기준항목들이 국내에서 적용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적인 평가기준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상완은 박홍석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24개의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로 구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한상완)

## 2. 국내학술지의 평가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를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은 해당 분야 연구자가 전공 학회지 순위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인정받는 학술지의 목록을 자신들이 제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수전공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질을 제삼자가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주제분야의 주요 학술지 목록을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SCI와 같은 객관화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학술지 평가를 위해 외형적인 평가와 내적인 평가, 인용분석을 통해 분야별 학술지 순위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 2.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일어일문학과를 대상

으로 하였다. 그 대상 학회지는 다음과 같다.

- ①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 ② 언어 (한국언어학회)
- ③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 ④ 일어교육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⑤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 ⑥ 한글 (한글학회)

이상의 학회지는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이 인정하는 학회지의 목록에 기록된 것이다.

## 2.2 외형적 평가

학술지 평가기준을 외형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 우수한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는 우수할 것이다.

- 학회와 같은 연구집단이 발행한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은 기타 집단에서 발행한 논문집의 논문보다 질이 우수할 것이다.

미국의 ISI와 NLM에서는 외형적 평가기준으로 학회의 설립목적과 학술지 발행의 정시성, 학술지와 그 내용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 언어, 학술지의 외관, 게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자질, 심사위원과 저자의 분포, 주제분야의 발전 가능성, 독자에 대한 적합성, 기존의 학술제에 대한 보완성, 내용의 질, 창의성, 논문의 종류, 연관 기관, 과거에 받은 등재를 위한 심사 등을 선정하였다.(박홍석) 이상과 같은 조건이외에도 NLM에서는 학술지에 광고가 있는지, 인용된 참고문헌의 발행일자가 최신의 것인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도 또다른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원칙 가운데 학회지의 변별력이 있는 항목을 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

형적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평가기준은 크게 학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하는 학회총람(학술진흥재단)을 분석하는 것과 첨단학술정보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학회정보사이트, 1997년도 발간 해당 학회지, 이상의 정보원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은 당해 학회의 문의를 통해 입수하였다.

- 학회의 외형정보 : 학회의 외형정보는 해당 학회가 갖는 외형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단기간내에 변경할 수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며 객관화가 가능한 정보이다.

- 게재자의 광역성 : 게재자의 광역성은 학회의 운영이 전국적인지 혹은 지역적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단,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게재자들이 제한되었을 경우 지역적인지 혹은 광역적인지의 판단은 유보한다.

- 회원수 : 회원수는 학회와 같이 회원으로 유지되는 순수 연구단체와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를 결정짓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즉 회원수가 일정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그 학회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술지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이는 학술지 발행의 기본 취지인 해당 학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찬동하는 자가 가입할 수 없다는 배타적 성격의 학회이든지 혹은 연구진에게 외면을 받는 학회일 것으로 간주하여 이 기준에 적합유무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 발행처 : 이 기준은 순수 학회지와 기타 학술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구소회지나 기관지 혹은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보다 순수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높이 평가하는 원칙을 설정하였다.

- 창간년도 : 학술지는 정기간행물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행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학진지원 :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유무는 학회의 평가항목중에 그리 큰 요소는 아니다. 다만 학진지원은 학술진흥재단에서 해당 학회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객관화된 정보로 간주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학술활동 : 학회가 활발한 학술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수한 학회임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연간 학술대회나 연간 세미나 개최횟수와 해당 대회때 몇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 학술지의 외형정보 : 학술지의 외형정보는 1997년도에 발행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발행의 정기성 :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연속간행물이어야 하며, 최신의 정보와 연구전선을 소속 회원에게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그 가치가 있다. 따라서 발행의 정기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ISI와 NLM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한상완도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한상완)

- 논문게재편수 : 논문의 게재편수는 해당 학회에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한호(NUMBER)당 실린 논문의 수가 아니라 한권(VOLUME)에 실린 전체 논문의 총수로 결정한다.

- 논문체제 : 논문의 체제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논문의 구성요소를 만족시키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초록의 유무와 각주나 참고문헌의 유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2.3 내적 평가

학술지의 내적 평가는 해당 학술지에 대한 논문의 기각율(혹은 게재율)에 근거한다. 이 기준은 해당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의 엄격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화된 평가이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회원수에 근거한 기각율도 측정하였다. 이는 지역적인 학회에서 적은 수의 회원으로 해당 학회지에 게재하는 연구량이 전국 규모의 학회에서 발행되는 학회지에 게재하는 연구량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원수에 대한 논문게재율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2.4 인용분석

인용분석은 1997년도에 발행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실질적인 인용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코아 학술지(학위 논문등)를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수학술지와 주변학술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의 교수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속해있는 전문 학회지를 주관적으로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인용정보는 제출된 학회지의 논문군을 기준으로 인용빈도를 조사하였다. 1차적인 연구는 인용된 국내학회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sup>1)</sup> 왜냐하면, 국내 논문의 경우 정기간행물 인용빈도가 외국 학술지에 비해 극히 떨어지므로 인용분석을 위한 절대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2.5 평가의 제한점

이상과 같은 평가기준가운데 외형적 정보만으로 모든 학술지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1) 인용된 학회지/인용된 국내학회지 총수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학제적인 연구기관(예: 한국정신문화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의 경우 이는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지의 전국성과 발행처항목에서 제시된 기준에 미달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받고 학술지로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특별 기고 논문(visiting thesis)의 경우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낮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객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나 이는 일련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소한의 주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쳤다.

### 3. 분석결과

평가 결과의 분석은 크게 외형적 기준으로만 이루어졌을 경우와 인용분석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3.1 외형적 정보를 이용한 평가

일문학분야의 학회지를 대상으로 외형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표 1>

학 술 지 명	순 위
▪ 국어국문학	3
▪ 언어	5
▪ 일본학보	4
▪ 일어교육	6
▪ 일어일문학연구	2
▪ 한글	1

표 1 외형적 분석 순위

#### 3.2 게재율 정보를 이용한 평가

일문학분야의 학회지를 대상으로 내적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표 2>

학 술 지 명	순 위
▪ 국어국문학	1
▪ 언어	4
▪ 일본학보	5
▪ 일어교육	3
▪ 일어일문학연구	2
▪ 한글	5

표 2 게재율 분석 순위

이 수치는 1996년도 기준으로 첨단학술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토대로 하였다.

#### 3.3 인용정보를 이용한 평가

일문학분야의 학회지를 대상으로 인용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표 3>

학 술 지 명	순 위
▪ 국어국문학	4
▪ 언어	5
▪ 일본학보	1
▪ 일어교육	6
▪ 일어일문학연구	2
▪ 한글	3

표 3 인용 분석 순위

#### 3.4 종합정보

일문학분야의 학회지를 대상으로 이상의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학 술 지 명	순 위
▪ 국어국문학	2
▪ 언어	5
▪ 일본학보	4
▪ 일어교육	5
▪ 일어일문학연구	1
▪ 한글	2

표 4 종합 순위

#### 3.5 분석결과 및 제한점

이상의 결과는 각 항목에 지정된 배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항목배점에 따라 학술지의 순위가 변동될 수 있다. 특히, 인용분석에 어느 정도의 배점을 배정하는가에 따라 순위에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배점이 차이가 있어도 주요 학술지와 주변 학술지간에 순위 변동은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각 부분에서 고른 배점이 부여된 '일어일문학연구'는 일문학분야에서는 가장 주요한 학술지로 평가되었으며, '일어교육'은 주변 학술지로 평가된 것이 그 예이다. 한편, '국어국문학'과 '한글'과 같은 범용적인 학회지는 국어국문학 분야에서도 반드시 일문학분야의 순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일문학분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인용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 분야와의 전체적인 지수는 아직 입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 순위는 지역적인 분야의 순위이며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한 평가순위는 아니다. 또한, 이 순위는 전적으로 특정대학 소속의 교수들이 추천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술지의 추가 혹은 삭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 결론

학술지의 평가는 시대적 조류이며, 평가의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학술지도 시간과 주위 환경에 따라 주요 학술지에서 주변 학술지로 혹은 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장성과 위축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학술지 평가에 외형적 정보와 내적인 정보, 인용정보를 도입하여 순위를 조사하였다. 이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입수할 수 있었다.

- 외형적 정보만으로도 일정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 외형적 정보와 논문게재율과 같은 내적인 정보를 합산하여 평가할 경우도 일정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단, 이때는 논문신청자수와 회원수에 따라 변동 지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학술지의 自家 인용정보만으로도 학술지 평가의 일정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 특정 주제분야의 순위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순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범용적인 학술지의 추출도 가능하다.

## <<참고문헌>>

- 한국학술진흥재단 (1996). 학회총람. 동재단.
- 첨단학술정보센터.  
[http://www.kric.ac.kr/rsis/rsis\\_index.htm](http://www.kric.ac.kr/rsis/rsis_index.htm)
- 박홍석(1997). 학술지 평가의 배경, 사례 및 평가 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 국내 학술지 평가기준에 관한 공청회 발표 자료.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상완(1997). 학술지 평가항목 및 기준 모형에 관한 연구. 국내 학술지 평가기준에 관한 공청회 발표 자료. 한국학술진흥재단.
- 남영준 (1995). '인용문헌을 이용한 정기간행물 효용성 평가' 제2회 한구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129-132.
- 김선호 (1988). '핵심잡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구정보관리학회지 제5권 1호. pp.53-77